

加德島의 基層文化調查研究(Ⅱ)

一口碑文學一

金承璫*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제보자 소개 |
| II. 조사마을 개관 | IV. 구비문학 |

I. 서론

加德島(行政地名: 江西區 天加洞)는 1989년 1월 1일 부산시 강서구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경남 의창군 천가면으로서 넓이 20.96km²이며, 1991년 5월 현재 家戶數는 1130家口, 常住人口數는 3809명(남 1862명, 여 1947명)인데, 부산시는 이 섬에 절경이 많고 좋은 낚시터가 많아 앞으로 관광위락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섬은 낙동강 하구의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진해시 龍院부락의 水路를 통해 부산시 및 경남지방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의 불편으로 인해 주민의 이동이 거의 없으므로 현재 부산시의 관할 지역으로써는 기층문화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이 섬이 관광위락지로 개발되면, 이 섬에 현존하는 기층문화는 불원간 소

* 釜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 이 논문은 1990년도 문교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 육성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떨하게 될 처이므로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루 빨리 기층문화를 조사·기술해둬서 해서 부산지방 반농반어촌(가덕도의 산업구조는 어업57%, 농업43%로 이루어져 있음)의 기층문화를 파악·보존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할 뿐 아니라, 반농반어촌의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활 양식의 변화과정이나 문화의 변동과정을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층문화를 조사·보고하되, 여기에서는 구비문학에 한하여 조사·보고하고자 한다.

가덕도의 구비문학 조사는 1985년 8월에 1차 실시한 뒤, 1990년 8월부터 1991년 8월까지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한 날짜와 마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985. 8.10-12(3일간) : 천성·대항¹⁾ 1991. 2. 27-3. 1(3일간) : 천성
 1990. 8. 1- 4(4일간) : 성북·동선²⁾ 1991. 7. 12-14(3일간) : 대항
 1991. 1. 4- 6(3일간) : 천성 1991. 8. 3- 5(3일간) : 놀차
 1991. 1. 30-31(2일간) : 천성

그리고 이 조사에서 채집한, 구비문학의 제보자와 편수는 다음과 같다.

조사 마을	동선	성북	놀차	천성	대항	계
제보자 수	5	3	2	8	3	21
채집설화수	26	14	12	27	8	87
채집민요수	7	3	·	54	14	78

이상 채집한 설화와 민요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먼저, 설화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설화의 유형별 분류는 曹喜雄의 '韓國說話分類表' (韓國說話의 類型的 研究, 韓國研究所, 1983)에 의거하였음.]³⁾

- 1) 1985년 8월에 채집한 설화 가운데 6편은 필자의 「慶南地方의 民謠」(第一文化社, 1986)에 수록하였음.
- 2) 1990년 8월에 채집한 설화 가운데 8편과 민요 가운데 7편은 필자의 「加德島의 基層文化調査(1)」(부산대 국어국문학 27집, 1990)에 수록하였음.
- 3) 필자는 神異譚에 異助譚·退治譚의 유형을, 一般譚에 近親相姦譚의 유형을 더 설정해 넣었음.

1. 動植物譚(起源譚 · 痴愚譚 · 競爭譚은 채집되지 않았음)

智略譚 : 꿩과 쥐(김정순)

2. 神異譚(呪寶譚은 채집되지 않았음)

起源譚 : 저승 문 닫은 이야기(김정순)

變身譚 : 매구이야기(신필애) · 가난한 사람과 천년 묵은 지네(김기일) · 소가 된 여자(조정원) · 소라고동 색시(김정순) · 논고동 색시(박상봉) · 동동시 선부(최복련) · 상사 면한 처녀(김을선) · 상사뱀 이야기(박상봉) · 구렁이가 용이 된 이야기(신필애) · 저승에서 빌은 여비(박상봉) · 학동과 여우⁴⁾(김을선)

應報譚 : 산신령이 도운 효자(김찬이) · 소금장수와 인어(김찬이) · 동구시복 이야기(조정원) · 박복한 사람 복 탄 이야기(김찬이) · 박문수와 효녀(김두선) · 손(客) 끊겨 망한 부자(이소전)

超人譚 : 애기장수 전설(박상봉 · 허원 · 박말순 · 이영순) · 주천자 이야기(박상봉) · 숙종대왕을 살린 이인(김두선)

豫言譚 : 맹인 부자의 名卦(김기일) · 손병산의 꿈(김기일) · 장승혈 이야기(이영순) · 묘터 발복 이야기(김을선) · 묘터와 발복(김기일) · 풍수 자기 집터 못보는 이유(김기일) · 코에서 나온 쥐(김기일)

異助譚 : 하늘에 복 타러 간 총각(이소전) · 계모에 학대받던 딸(김정순)

退治譚 : 씨름에 혼난 도깨비(박상봉) · 도적에게 빼앗긴 아내 찾기(신필애) · 색시 원수인 돼지를 퇴치한 소금장수(김두선) · 터럭송이 이야기(허원)

3. 一般譚(순수한 艷情譚은 채집되지 않았음)

起源譚 : 호랑이와 수수깥(김정순) · 매미가 된 부인(이소전)

4) '학동과 여우'의 이야기에는 변신화소, 영정화소, 퇴치화소, 풍수화소가 들어 있다.

4 韓國文學論叢 第12輯

敎訓譚：지렁이로 눈뜨게 한 효부(김기일) · 징검다리 효자(김기일) · 복두 칠성이 된 형제들(이영순) · 정직한 세째 딸(김정순) · 고려장 없앤 이야기(김찬이) · 죽은 부친 혼례시킨 이야기(신필애) · 불효처의 마음씨 고친 남편(김기일) · 늦판 효자(최복련) · 두 효자(김찬이) · 진주 자리뽑쟁이와 며느리(김정순) · 범한테 죽은 중(조정원) · 천벌받은 며느리(박말순) · 형제와 도깨비 방망이(최복련) · 박문수와 초립동 신랑(김정순) · 개 복 이야기(신필애)

出身譚(科學譚)：시묘 사는 여인과 과거급제(조정원) · 호식갈 도령과 결혼한 정승 딸(신필애) · 호식갈 도령과 결혼한 세 정승 딸(김정순)

近親相姦譚：옥녀봉 이야기(김기일) · 달래강 이야기(김기일)

4. 笑談(風月譚은 채집되지 않았음)

起源譚：삼천갑자 동방삭(김정순) · 사돈 닭 잡아(김기일)

智略譚：고창영의 명재판(박상봉) · 잠자리 거부한 아내 재판(김기일) · 혼장 장가 보낸 학동(김기일) · 안씨와 명씨의 성씨 싸움(김기일) · 외손자 방아고(김정순 · 조정원)

痴愚譚：상객과 실수한 이야기(김정순 · 김기일) · 바보사위와 호박범벅(김기일)

誇張譚：좀시래기 이야기(김기일) · 소를 바꿔 탄 사돈(김기일)

偶幸譚：꿈 때문에 출세한 머슴(김기일) · 쫓겨난 세째 딸(김찬이)

捕獲譚：범 잡아 부자된 부인(조정원)

淫褻譚：감골 아저씨와 시골 처녀(김기일) · 성기 큰 남녀(김기일) · 소금한 배 먹는 구멍(김기일) · 물맛보다도 꼬리맛(김기일) · 까마귀 고기(김기일) · 저승 간 잡된 남녀(김기일) · 까마귀의 울음(김기일) · 호랑이를 쫓은 처녀(박말순) · 음녀를 징치한 도사(박말순) · 農婦와 중(박말순)

5. 形式譚(語戲譚·無限譚·短型譚은 채집되지 않았음)

反復譚(累積形式) : 잔수 한 이삭(김정순)

다음으로, 채집된 민요를 기능에 의해서 분류하면[민요의 기능적 분류는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71)의 분류법에 의거 하였음.]

1. 機能謠(30편)

1) 勞動謠(漁業勞動謠·製粉勞動謠·採取勞動謠·運搬勞動謠는 채집되
지 않았음)

農業勞動謠 : 등지(김일분·박임이·김말분·이노길·전숙영·김정
순·김찬이·김을선)·보리타작요(박임이·이소전)

手工業勞動謠 : 망건노래(박임이)·탕건노래(김정순)

土木勞動謠 : 달구질 노래(박임이)

길쌈勞動謠 : 베틀노래(박임이·김정순)·물레노래(이소전)

家內勞動謠 : 아기 어루는 노래(이소전·김일분·조정원·김정순)

2) 儀式謠

歲時儀式謠 : 성주풀이⁵⁾(박임이·박연이·이노길·이소전)·조왕풀
이(박임이)·장독풀이(박임이)·마굿간풀이(박임이)

葬禮儀式謠 : 상여 앞소리(김동식)

3) 遊戲謠(舞踊遊戲謠·競技遊戲謠·言語遊戲謠는 채집되지 않았음)

機具遊戲謠 : 그네뛰기 노래(이노길·이소전)

2. 非機能謠(48편)

상사요(박연이·이소전)·사위요(박연이·김상이·김말분)·창부타령(박

5) 이 지방에서는 성주풀이를 '지신풀이'로 대용하여 부르고 있음.

연이 · 김말분 · 김일본 · 김상이 · 이노길 · 이소전) · 고아 한탄요(박연이 · 김상이) · 도라지타령(박연이 · 박임이 · 이노길 · 전숙영) · 양산도(박연이 · 김상이) · 저승요(박연이) · 돈타령(박연이) · 시집살이요(박임이 · 이소전) · 권주가(박임이 · 이노길) · 백발가(박임이 · 이소전) · 기생요(박임이) · 김정승 딸딸요(박임이) · 정열가(박임이 · 김상이) · 방구 노래(박임이) · 소박맞은 신부요(박임이) · 줌치요(박임이) · 임 노래(김일본) · 망부요(김일본) · 이 노래(김일본) · 전주난봉가(김일본 · 신필애 · 이소전) · 계모에 설움받는 자식요(김상이) · 사랑가(이노길) · 각설이타령(이노길 · 이소전) · 화투 노래(김정순 · 이소전) · 땡기 노래(이소전) · 담배 노래(이소전)

이상으로 유형 분류를 한 구비문학 작품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설 화

종 류	유형	편수	합계	종 류	유형	편수	합계
동식물담	지략담	1	1	일반담	출신담	3	22
신이담	기원담	1	37		근친상간담	2	
	변신담	11		소 담	기원담	2	
	응보담	6			지략담	6	
	초인담	6			치우담	3	
	예언담	7			과장담	2	
	이조담	2			우행담	2	
	퇴치담	4			포획담	1	
	기원담	2			음설담	10	
일반담	교훈담	15	형식담		반복담	1	1

2) 민요(기능요에 한함)

큰갈래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농업	수공업	토목	길쌈	가내	세시	장례	
작은갈래								
편수	10	2	1	3	4	7	1	2
합계	20					8		2

가덕도의 설화를 보면, 동화적인 설화인 ‘핑과 쥐’ ‘호랑이와 수수깡’ ‘매미가 된 부인’과 전설적인 설화인 ‘애기장수 전설’(4편), ‘옥녀봉 이야기’ ‘달래강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79편이 민담적인 설화인 만큼, 가덕도민은 교훈과 흥미(破閑)를 위해 설화를 구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8편의 설화 가운데 22편의 설화가 가난한 인물(남자6·부인4·노총각3·외조부2·효자1·효녀1·소금장수1·풍수1·머슴1·동생1·아들1)을 행위의 주체(주인공)로 세운 것을 볼 때, 가덕도민은 가난의 극복을 생활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덕도의 민요를 보면, 대부분의 민요가 婦謠이며, 채집민요의 과반수 이상이 非機能謠이다. 이는 부인들의 작업현장이 좁은 데(농토가 많지 못하여 그들의 작업 현장은 거의 상실되어가는 현상임)다가 현재는 노는 여전이 곧잘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II. 조사마을 개관⁶⁾

1. [조사마을1] 부산직할시 강서구 천가동 천성

천성마을은 가덕도 중부지역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다. 마을 앞쪽 바다는

6) 조사마을 가운데 놀차·성북·동선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필자의 ‘加德島의 基層文化調査(1)’(부산대 국어국문학 제27집)에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을 생략하였음.

鎭海灣에 접하고 있으며 멀리는 거제도가 바다라 보인다. 해안선은 활처럼 휘어들어온 형태로 灣入海岸을 형성하고 있는데 天城灣이라 불린다.

천성만은 선박이 집안하기 좋고 風波를 피하기 좋아 천혜의 漁村일 뿐만 아니라, 대마도에서 부산·진해쪽으로 진입하는 海路의 요충에 위치해 있어서 군 기지로써도 중요한 지점이라, 조선 中宗 39년에는 鎭堡築城 양식의 天城鎭城(현재 마을의 뒷편 연대산 밑에 있음; 부산시 기념물 제34호)을 쌓았고, 왜정때는 천수대에 砲臺를 설치했던 곳이다.

부락민들은 起村 年代를 약 400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옥들이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長形의 취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천성마을 가운데에, 煙臺峰(459m) 산록에서 발원하는 작은 시내가 흐른다. 이 시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남쪽 마을을 ‘남중’이라 하고, 북서쪽 마을을 ‘서중’이라 하며, 그 북쪽 구릉 너머에 ‘두문’마을이 있다.

남중은 海岸段丘에 위치해 있어 평지면적이 좁은데 비해, 서중은 비교적 평탄하고 완만한 경사의 산록으로 뻗어나간 지역이어서 평지 면적이 넓고 농경지가 발달해 있다. 따라서 남중은 주로 어업을, 서중은 주로 농업을 하며, 두문은 경사진 해안에 자리잡고 있어서 주로 어업에 종사한다.

천성은 해변 농어촌이지만 마을 총소득액의 다소로 따지면 단연 어업이 주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농업은 자급자족에도 못 미치는 종된 산업이다.

어장은 1종 양식장(어패류)이 135ha, 2종양식장(미역류)이 15ha, 피조개양식장이 18.5ha이며, 봄철의 숭어잡이가 유명하다. 그리고 중요 농작물로는 쌀·마늘·옥파 등이 있는데, 특히 옥파의 생산이 가장 많다.

가구수와 인구수(1990. 10. 현재)를 살펴보면, 233가구 730명(남 351명, 여 379명)이며, 순농가가 74가구, 순어가가 51가구, 반농반어가가 108가구이다.

주요 성씨별 주민 구성을 살펴보면, 김해 김씨와 광산 김씨가 약 20%를 차지하고, 능주 具氏·평산 申氏·밀양 朴氏·진양 姜氏·김해 許氏가 각각 6% 정도 차지하고, 그 나머지 여러 성씨가 살고 있어, 뚜렷한 중심 성씨가 없는 전형적인 각성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취학 아동은 부락내에 있는 천성국민학교에 다닌다. 이 학교의 교원수는 9명(유치원 교원 1명 포함) 학급수는 각학년 1개반으로 편성되어 총 6학급, 학생수는 83명(남 34명, 여 49명)이다. 1985년 9월부터 이 국민학교에 병설 유치원(한 학급, 남9명, 여10명)이 개설되어 취학전 아동의 조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고등 학생은 대부분 성북 부락의 덕문중학교와 덕문고등학교에 도보로 통학한다.

주민의 약 70%가 불교를 믿으며, 부락 북쪽 성북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중턱에 영주암(법화종 마산 12교구 소속, 1950년 설립)이 있고, 마을 내에 천성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가 있는데, 신도수는 70여명이다.

마을 내 행정기관으로는 부산 해양경찰서 천성 선박출입항신고소와 천성보건진료소가 있으며, 복지 시설로는 천성복지회관이 있다. 교통은 진해시 龍院洞에서 大項 사이를 왕복 운항하는 정기운항선이 약 2시간 간격으로 다니는데, 주로 이를 이용하여 물나들이를 한다. 소요시간은 천성에서 용원까지 약 1시간이다.

2. [조사마을2] 부산직할시 강서구 천가동 대항

大項(한목)마을은 가덕도의 남부 서안에 자리잡은 해변 어촌이다. 구 행정 구역명이 천가면 대항리(1988년 이전)였던 때에 대항리는 새바지·한목·外洋浦의 세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외양포는 일제시대에 대마도와 연계되는 군사 요충지로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했던 군인 군속의 집단 거주지역으로 지금도 당시 팠던 참호(대피 및 총포보관 시설)와 1905년(明治38년) 5월에 세운 ‘北洋浦 司舍部 發祥之地’라는 비석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목 마을의 북쪽에는 연대봉, 남쪽에는 國守峰이 솟아 있고, 마을 뒤 동쪽과 마을 앞 서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어 지형이 큰 목 모양을 이루고 있다. 마을 명칭 ‘한목’도 이에서 연원한 것이며, 대항은 이의 漢字 義借 표기에서 생긴 지명이다. 마을 앞 서쪽으로 해상 10km의 거리에 있는 거제도 옥포가

바라보이며, 마을 뒤 고개 너머 동쪽 바다 쪽으로는 부산 다대포가 바라다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기촌년대를 약 130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천 허씨가 이주해 온 지는 107년이 되었다고 한다. 부락 내 총가구수는 156호, 총인구수는 431명(남 215명, 여 216명)이다(1990. 10. 현재). 주요 성씨별 주민 구성을 살펴보면, 김해 김씨와 안동 김씨를 포함하여 김씨가 약 30%, 양천 허씨를 포함한 허씨가 약 13%, 신안 주씨가 약 11%, 경주 이씨를 포함한 이씨가 약 8%, 나머지 기타 각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성 부락이다.

부락 내 어업협동조합의 공동어장으로는 제1종 공동어장(어패류) 72ha, 3종 공동어장(송어·노래미 등) 5.8ha, 해조류 양식장(김·파래·미역 등) 21.3ha, 명계 양식장 3ha 등이 있어, 공동 생산의 소득을 분배하는데 이것이 이 부락의 가장 주된 소득원이다. 농경지 면적은 논이 56,996m², 밭이 136,499m²로써 밭이 훨씬 많다.

산업별 종사 호수를 보이면, 어업을 주로하는 가구가 89호, 농업을 주로하는 가구가 61호, 반농반어의 가구가 6호이다. 따라서 이 부락의 주산업은 어업이라 할 수 있다.

취학 아동은 부락내에 있는 대항국민학교에 다닌다. 이 학교의 교원수는 7명, 학급수는 총 5학급인데 1-2학년이 1개 학급, 3-6학년은 각학년 1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교생수는 57명(남 36명, 여 21명)인데 취학 아동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학교의 보호자 실태조사에 나타난 보호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중졸이 50%, 국졸이 26.7%, 고졸이 20.3%, 대졸이 3.1%이다.

부락 뒤에 사찰 혜덕사(1984년 설립, 조계종)가 있으며, 이 사찰에 다니는 신도수는 100여명이다. 부락내에 대항교회(1954년 설립,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가 있는데 신도수는 50여명이다. 또한 일본계 신흥종교인 일련정종을 신봉하는 신도가 19명이다.

마을 내의 공공 시설물로는 해군 해안경비초소·대항 보건진료소·마을

회관·경노당 등이 있다. 교통은 진해시 용원동에서 부락 사이를 운항하는 정기 운항선이 약 2시간 간격으로 운항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육지 나들이를 한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섬의 남단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이 매우 불편한 편이다.

Ⅲ. 제보자 소개

[제보자 1] 박임이(여. 77. 무학)

이 제보자는 천가동 천성 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 17세 되던 해 성북마을 태철희씨와 결혼한 뒤 시집마을인 성북마을에서 계속 살다가 1년 전에 다시 천성 마을에 부군과 함께 이주해 살고 있다.

본관이 밀양, 태호가 천성대인 이 제보자는 효성이 지극하여 시집가자 병중에 있는 시부를 잘 모셔 효부라는 칭송을 마을 사람들로 부터 받았으며, 47세 때부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한 곳에 가서 물으니 칠성님과 시부의 영(靈)을 잘 모시면 낫는다 하여 50세 때부터 그 두 분을 모시니 병이 나았고, 현재 명도 일을 보고 있으며 안택굿을 잘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비전승물에 대한 기억력이 좋을 뿐 아니라, 가창 능력도 있어서 많은 민요와 잡가를 가창했다. 이 제보자가 가창한 민요로는 ‘보리타작노래’ ‘시집살이요’ ‘권주가’ ‘등지’ ‘달구질노래’ ‘방구타령’ ‘춤치노래’ ‘베를노래’ ‘망전노래’ 등이 있고, 무가로는 ‘비력대이’ ‘용왕풀이’ ‘삼신풀이’ ‘손님풀이’ 등이 있다.

[제보자 2] 김기일(남. 62. 국졸)

이 제보자는 천가동 천성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눌러 살아온 순 토박이로서 13대째 이 마을에 거주한다고 했다.

본관이 김해인 이 제보자는 성격이 꼼꼼하고 부지런하여 천성어업협동조합장·동개발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마을 발전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

구비전승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기억력과 구연 능력이 아주 뛰어나 몇 수 십편의 설화를 쉬지 않고 잇달아 구연하는 등 이야기꾼으로 정평이 나 있고, 말씨는 표준어 의식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이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로는 ‘좀시래기 이야기’ ‘풍수가 자기 집터 못 보는 이유’ ‘훈장 장가 보낸 학동’ ‘가난한 사람과 천년 묵은 지네’ ‘지렁이로 눈 뜨게 한 효부’ ‘맹인 부자의 평괘’ 등 20여편이 있으며, 음담패설로는 ‘까마귀의 울음’ ‘감골 아저씨와 시골 처녀’ ‘물맛보다 콩지맛’ 등 10여편이 있다.

[제보자 3] 박연이(여. 67. 무학)

이 제보자는 천가동 율리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라 18세 되던 해에 천성 마을 조동기씨와 결혼한 뒤 시집 마을인 천성 마을에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본관이 밀양, 태호가 밤꿈택인 이 제보자는 유학과 한약업을 하는 조씨 집안에 시집와서 5년만에 이름 모를 속병에 걸려 30여년을 고생하다가 50세에 남편과 사별한 뒤 53세에 신굿을 하였더니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아 현재는 마을 뒤에 신당을 세우고 무업을 하고 있다.

이 제보자는 현재 신당에 북두칠성 성군·산신도사·옥황상제님·신장님·용왕대신의 다섯 신령을 모시고 있으며, 보살로서 이름을 떨쳐 각 곳에 다니며 무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 제보자는 성격이 차분하고 음성이 아주 좋아 가덕도에서 베푸는 노래 자랑대회에 나가면 언제나 1등을 한다.

이 제보자가 제공한 민요와 잡가로는 ‘창부타령’ ‘초한가’ ‘상사노래’ ‘도라지타령’ ‘양산도’ ‘고야 한탄 노래’ ‘사위노래’ ‘돈타령’ 등이 있으며, 무가로는 ‘천왕굿 노래’ ‘저승노래’ ‘산신풀이’ ‘신수보는 노래’ ‘안택굿놀이’ ‘가정 축원가’ 등이 있다.

[제보자 4] 이노길(여. 68. 국쥬)

이 할머니는 천가동 동선 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라 18세 되던 해에

천성 마을의 김용한씨와 결혼한 뒤 시집마을인 천성 마을에 와서 살게 되었다.

본관이 경주, 태호가 동선댁인 이 할머니는 장고를 잘 치며, 다른 민요 가창자에 가사 앞머리를 가르쳐 주는 등 민요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좋으며 특히 노랫가락을 잘 했다.

이 할머니가 가창한 민요와 잡가로는 ‘등지’ ‘창부타령’ ‘권주가’ ‘도라지타령’ ‘그네타령’ ‘노랫가락’ ‘각설이타령’ ‘성주풀이’ ‘양산도’ 등이 있다.

[제보자 5] 전숙영(여. 79. 무학)

이 할머니는 충청도 옥천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라 15세 되던 해에 능성 구씨와 결혼한 뒤 거기에서 살다가 40년전에 능성 구씨들이 10여 가구 살고 있는 천성 마을로 남편과 함께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남편은 25년 전에 사망했다.

본관이 옥천, 태호가 옥천댁인 이 할머니는 구비전승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나, 조사자가 이 마을에 민요를 채집하러 갔을 때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있게 되어 민요와 잡가 몇 편을 가창하게 되었다. 이 할머니가 가창한 민요와 잡가는 ‘노랫가락’ ‘등지’ ‘백발가’ ‘도라지타령’ 등이 있다.

[제보자 6] 김말분(여. 63. 국췌)

이 제보자는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달성 서씨와 결혼한 뒤 슬하에 5남매를 얻고 30세 때 남편 서씨와 사별하고 이 천성 마을로 이사와 살게 되었다.

본관이 김해, 태호가 마산댁인 이 할머니는 앞의 전숙영 할머니와 같이 조사자가 이 마을에 민요를 채집하러 갔을 때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있게 되어 민요 몇 편을 가창하게 되었다. 민요에 대한 가창 능력도 약했다.

이 가창자가 부른 민요와 잡가에는 ‘창부타령’ ‘사위 노래’ ‘노랫가락’ ‘등지’ 등이 있다.

[제보자 7] 김상이(여. 65. 국출)

이 할머니는 경남 의창군 웅천면에서 태어나 19세 되던 해에 천성 마을의 주양갑씨와 결혼하여 이 마을에 와서 살게 되었다.

본관이 김해, 태호가 웅천댁인 이 할머니는 민요의 가사에 대해 기억력도 있을 뿐 아니라 가창 능력도 있는 편에 속한다. 특히 민요를 가창할 때는 힘차고 신나게 부르며 때로 즉석에서 민요의 가사를 창작하여 부르는 능력도 있었다.

이 가창자가 부른 민요와 잡가로는 ‘사위 노래’ ‘정열가’ ‘계모 학대 노래’ ‘고아 한탄 노래’ ‘양산도’ 등이 있다.

[제보자 8] 김일분(여. 74. 무학)

이 할머니는 천성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18세 되던 해에 이 마을 어부인 강명덕씨와 결혼한 뒤 계속 이 마을에서 살았으며, 20년전에 남편과 사별했다.

본관이 김해, 태호가 본동댁인 이 할머니는 민요의 가사에 대한 기억력도 있고, 또 가창 능력도 있으나 논리성이 좀 부족해 ‘등지 노래’ 같은 민요를 엮어 나가는데 결함을 드러냈다.

이 할머니가 가창한 민요와 잡가에는 ‘아기 어루는 노래’ ‘임노래’ ‘망부 가’ ‘등지’ ‘이 노래’ ‘진주난봉가’ ‘창부타령’ ‘성주풀이’ 등이 있다.

[제보자 9] 박말순(여. 72. 무학)

이 할머니는 천가동 눌차의 향월 마을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라 17세 되던 해에 결혼하고도 그 마을에 지금까지 눌러 살게 되었다.

본관이 밀양, 태호가 가덕댁인 이 할머니를 마을 사람의 소개로 만났는데, 성격이 쾌활하여 설화를 7편이나 구연하였는데, ‘천벌받은 며느리’와 ‘애기 장수 전설’을 제외하고는 ‘음욕을 가진 며느리’ ‘農婦와 중’ ‘호랑이를 물리친 처녀’ 등 5편이 음담패설이었다.

[제보자 10] 이소전(여. 78. 무학)

이 할머니는 천가동 새바지 마을에서 태어나 20세 되던 해에 김해 김씨

세명과의 후손인 김종엽과 결혼한 후 가덕도의 노루목(장항) 앞 연도에서 1년간 살다가 대항 마을로 와서 계속 살고 있으며, 71세때 남편과 사별했다.

본관이 아산, 태호가 새바지택인 이 할머니는 구비전승물 가운데 민요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난 뿐 아니라, 가창능력도 빼어나 30여편의 민요와 잡가를 가창했다.

이 할머니가 가창한 민요와 잡가로는 ‘아기 어루는 노래’ ‘등지’ ‘백발가’ ‘대기 노래’ ‘창부타령’ ‘진주난봉가’ ‘장타령’ ‘시집살이요’ ‘보리타작 노래’ ‘상사 노래’ ‘그네 노래’ ‘담배 노래’ ‘물레 노래’ ‘성주풀이’ 등과 설화로는 ‘하늘에 복타러 간 총각’ ‘매미가 된 부인’ ‘손 끊겨 망한 부자’ 등이 있다.

[제보자 11] 허 원(남. 72. 무학)

이 제보자는 천가동 대항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 마을에 눌러 살고 있는 토박이다.

본관이 양천인 이 제보자는 구비전승물에 대한 지식이나 기억력 및 구연능력은 보통이나 남의 앞에서 구연하기를 꺼렸다.

이 제보자는 ‘애기 장수 전설’ ‘터럭송이 이야기’ 등 주변 전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고 그에 대한 이야기만 구연하였다.

[제보자 12] 김두선(남. 75. 국졸)

이 제보자는 대항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성장하여 24세때 이 마을 처녀와 결혼하여 4녀 2남을 두었다.

본관이 광산인 이 제보자는 27세때 돈벌러 전라도를 거쳐 일본에 건너가 3년을 살다가 귀향하여 현재까지 고향에 눌러 살면서, 젊었을 때는 고기잡이를, 현재는 농업(논 5마지기, 밭 10마지기)을 하고 있다.

성격이 소탈하고 술을 먹지 않으나 말을 할 때 발음이 때로 불분명하고 허사 ‘말이지’와 ‘인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제보자를 만나게 된 것은 채집자가 대항 마을에 도착하여 경노당 회장을

만나 이야기 잘 하시는 분을 소개해 달라 하였더니 이 제보자를 추천해 주기에 제보자의 댁을 찾아가 설화 몇 편을 채집하게 되었다.

이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로는 '색시 원수인 돼지를 퇴치한 소금장수' '박문수와 효녀' '숙종대왕을 살린 이인'이 있다. [이 제보자는 1985년 8월 11일 오후 2시에 만났음.]

IV. 구비문학

[설화 1] 애기장수 전설

제보자 : 허 원(남, 72세)

채집일 : 1991. 7. 12. 오후 3시

채집장소 : 강서구 천가동 대항마을 제보자댁

※ 제보자가 고성군 당동의 '혈 끓은 산'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구연하였다.

우리 지방에서는 전설이라 카는 기가(것이), 옛날에 [제보자 : 청중을 향해] 영감님 와(왜) 절터에서 용마가 나왔다 카는 그런 전설이 안 있었습니까? 방구고개 가는데, 용마 발자죽 포(표지)가 있었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덕섬 이야긴데, 가덕섬, 지금 소양원이라 카는 고아원이 있어요. 소양원 우에 옛날에 우리가 모를 때 절터가 거기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장사가 난다고 이라면, 역적을 몰아서 그 집안을 멸망을 시키고(시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앵이지요? 그래서 어린애를 해산을 했는데, 삼일만에 산모가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서 퍼리(파리) 소리가 '윙'하더라고. 퍼리가 있을 때가 아인데(아닌데) 퍼리가 '윙'하더라고. 그래 창문을 열고 가만이 보인까 사람이 보는 데는 퍼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없으면 왕퍼리가 방안을 꼭 메우고 하는 그런 것이기 있어 가지고, 그래 그 산모가 그것을 발

전을 했던 모앵이라고요, 이상하다고. 그래 요새 걸으면 가족회의라 칼까 우(위) 어른들한테 이야기길 하이까 ‘이(이것이) 장군이 틀림없다. 아이가 크면 장군이 될 아이다’ 이래 가지고 일주일만에 이 아이가 거동을 하고, 하는 행동이 영 달라서 가족찌리 해나(혹시나) 국가에서 죄책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멧돌, 예전에는 멧돌로 가지고 나락도 쟁코(짚고) 보리도 쟁코 하던 멧돌을 가슴 껍에다가 한 짝을 없으니까 한 짝이 그냥 펄쩍펄쩍 뛰고 놀아서 두 짝을 없으니까 숨을 못 쉬고 그 애가 죽었다 카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죽어가지고 그 애는 매장을 하고 일주일만에 용마가 내려 왔어요. 용마가 내려오니까, 말탈, 장군될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고 이러니 그 말이 지내 가다가 여(여기) 울리(栗里) 밤꿈고개에 가다가 돌뼤(돌맹이) 아래에 그 발자국을 흔적을 남겼다 카는 그런 전설이 우리 지방에 있지요.

[설화 2] 줌시래기 이야기

채보자 : 김기일(남. 62세)

채집일 : 1991. 1. 5. 오후 7시

채집장소 : 강서구 천가동 천성마을 부천여인숙

※ 채보자는 종이에 자기가 이야기할 내용을 써 와서 ‘상객가 실수한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줌시래기 이야기를 하겠는데, 옛날에 줌시래기, 요새 같으면 구두쇠라 칼 까요. 이런 집안에 어느 여자가 시집을 갔던 모양이라. 가인께 자기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한테 타이르기를

“손님이 오거든 안주로 내놓을 때, 만일 김치를 썰어서 내놓을 때는 아주 잘게 썰어서 내 놓아라.”

카는 기라요. 그래야 손님이 주아(주워) 먹다 주아 먹다 지지기(지침)가 나서 많이 못 먹고 가라고. 그래 잘게 썰어 내나라(내어 놓아라) 카는기라요. 그렇게 큰 며느리한테 시키났는데, 둘째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손님이 왔다고

그것을 교육을 못 시켰더라는 손님이 온께 김치를 온 포기를 갖다 놔는기
요.

자기 시아버지 시엄마가 보니까 간이 툭 떨어지는기랴요. 온 포기를 갖다
봐노이.

그래 손님이 와가지고 간 뒤에 작은 머느리를 붙렸어.

“야야 이래 가지고 너가 살림을 우째 살것고. 너그 형님하는 거 뿐도 안
봤나?”

카인께네

“아부지, 형님 하는기 잘 하는 집니까? 내가 하는기 잘 하는 건지 내 얘기
한번 들어보이소.”

이저라.

“형님은 짬지를 쪼매끔 짱글어(끓어) 놓으면 손님이 먹고 가지마는, 온 포
기 갖다 놓는 거는 저까치만 건딜라서 이리 뒤비다가(뒤집다가) 저리 뒤비
다가 하나도 못 먹고 갔습니다.”

이저라

“그래 맞다. 니가 살림을 여물게 산다. 니라야 살림이 되겠다.”

그래 살림을 작은 머느리한테 맬것다 말이지. 맬겨 놔는데, 하로는 작은
머느리가 아침에 방에 누워 있으니까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 사소. 새우젓 사소.”

외고 가는기랴요, 그래서 큰 그릇을, 옛날 같으면 함백이, 큰 그릇을 가아(가
지고) 나가서 한 그릇에 얼마요 물어보이 얼마라 카거든.

“여(여기) 몇 그릇 부어보소.”

카인께네 몇 그릇 퍼부었는기랴요.

“이저 얼마데요?”

카인께네, 그래

“얼마요”

카인께네,

“이저 너무 비싸다.”

이거라.

“이라면 못 사겠소.”

카고 그 것을 다부 그릇에 부우 주고

“돈도 없고 너무 비싸 못 사니 다음에 오소.”

카고, 보내고 그래 돌아와 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국을 끓이면서 그 큰 그릇에
젓을 문쳐냈으니까 좀 묻은 거 씻겨 영고(냉고) 국을 끓인다 말이지.

그날 아침에 시어마이가 국맛을 보니까 국맛이 좀 달라. 이거 간장만 영고
끓였으면 안 그럴텐데 씻이 비렁내가 나고 조금 색다른 맛이 나더라 말이지.
그래서

“야야 오늘 아침 국맛이 이상한데, 국을 우째서 이리 끓었나?”

카인께네, 그래 새우젓 장사가 지내가길래 내가 피로 내가지고 몇 되 부우
(부어) 봐라 해가지고 다부 부우 주고 그걸 씻어 영고 국을 끓인다 카인께네,
저년 저저 사람 안되겠다 이거라.

“그걸 야야, 하로 아침에 우째 다 이노? 그 놈을 씻겨 가지고 잠독에다가
부었으면 우리가 일년은 무울(먹을) 거 아이가? 그 아까운 걸 하로 아침에
다 묵나?”

그래 그 꾸중을 받고, 시아바이가 밖에 나갔는데, 시아바이가 오면 하소연을
하면, 시아바이는 그래도 참 ‘니가 피가 용하다. 잘했다’ 칼저 아이가 싫어서
삼짝에 서가 있으니까, 시아바이가 삼짝에 들어오다가

“야야 여기 뭐하노?”

카인께

“아부지 오늘 아침 국을 내가 이런 이런 피를 내가(내어서) 국을 끓인더
마는 어무이가 날로 살림 잘못 산다고 쫓가넵니다.”

카거든.

“쫓가내기만 쫓가내. 그 놈을 씻겨가 우물에다 부웠으면 몇 년을 무울긴데”
카더라요. [제보자와 청중: 웃음] 시아바이가 좀더 하던 모양이지.

[실화 3] 풍수 자기 집터 못보는 이유

제보자 : 김기일(남, 62세)

채집일 : 1991. 1. 5. 오후 7시 50분

채집장소 : 상과 동

※ 제보자가 음담패설인 ‘감골 아저씨와 시골처녀’를 구연하고 난 뒤 이어서 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옛날에 풍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풍수가 참 보기는 잘 보는데, 본래 ‘무당이 지(제)곳 못한다’고 지 집터를 못 봐여. 못 보는데, 그래서 그 풍수가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누우가(누워서) 자기 마느래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참 좋은 집터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터에다가 집을 지었으면 잘 살겠는데, 그 터가 정씨가 집을 지으면 잘 살 터이지 우리 배씨가 집을 지으면 잘 살 터가 못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이 들었던 모양이지. 아들은 차츰 차츰 커가지고, 대충 시군(지혜)이 났던 모양이라. 그래서 요새 걸으면, 미신타파하는 식으로 정씨라고 집을 지으면 잘 살고 배씨가 집을 지었다고 못 살 것 뭐가 있노 싶어가지고 그만 그 아들이 가서 그 터에다가 수수끼(수수깡) 옴막 집을 하나 지었어예. 조매쿠로 막을 하나 매가지고, 거계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따독따독 잘 돼여. 잘 되는데, 그래 돼다보니까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래 거계다가 새로 집을 짓기로 했다 말이지. 막을 뜯어내고 집을 짓고 사인께, 잘 살게 되었는데, 부자로 사는데,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띠(띠어) 놓고 봐도 그 터에는 정씨가 집을 지어야 부자로 살지, 배씨가 집을 지어서는 부자로 살 터가 못 돼. 그래서 좋은 개와집을 짓고 부자로 살기는 사는데, 매일같이 풍수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띠놓고 봐도 이기(이것이) 배씨 터가 아인데(아닌데) 아인데 항상 늙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구들막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라.

그래 자기 안해가 듣다 듣다 보니까 하도 그것해서 그 때는 나이가 좀 많
애져 가지고, 그래 자기 마느래가 하는 말이,

“영감, 인지사(이제사) 우리 아들 놓고 손지 보고 다 했으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이 원을 품은 걸 실토를 하겠소. 우리가 못살 때 그 앞 마을 정씨 부자
집에서 하리(하루) 놀로 갔더니만 내가 할 수 없어서 강간을 한분 당했더마는
그기 아들이 똬던 갑소.”

카이

“그러면 그렇저! 우리 배씨가 살 터가 아인데.”

커다랍니다. 거기(그것이) 안제 풍수가 보기는 잘 봤는데, 자기 집터를 못
본다 카는 기 옛날에 그래 두고 하는 말이 내려왔다 그래(그렇게) 보지.

[설화 4] 코에서 나온 쥐

제보자 : 김기일(남. 62세)

채집일 : 1991. 1. 4. 오후 7시 20분

채집장소 : 상과 동

※ 제보자가 ‘꿈꾸고 출세한 머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꿈에 관한 이야
기를 하나 더 해야 하겠다 하면서 이 설화를 구연하였다.

옛날에 나(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 코에서
쥐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

옛날 부부간에 참 가난하게 살림을 살고 있는데, 하로 저녁에는 밤 늦도록
안해가 바느질로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랫목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이
보니까 남편 콧구멍에서 쥐가 한 마리 나와요. 쥐가 나오더마는 밖을 나갈라
고 두리두리 살펴쌍는 것을 본께, 전부 문이 발라져 있고 못 나가니까, 그래
문을 사알 열어주인께 쥐가 소롯이 나가여. 나가는데, 쥐를 따라 가봤는기라.
가면서, 각중에(갑자기) 들고 갈 것이 없어가 바느질에 쓰는 자(尺) 안 있어
요? 자를 들고 사알 갔는기라. 자를 들고 가니까, 쥐가 쪼매(조금) 가더마는

큰 내가 있으니까, 그 내에 물이 있으니까 못 건너서 이래 야단을 지기는데 (치는데), 자로 살모시 옆에 놔놓으니까 자를 타고 쪼르르 건너가거든. 그래 쥐 따라서 갔던 모양이지. 한참 가더니, 어느 산중으로 드가더마는, 한 쥐구멍으로 드가더마는, 한참 있어도 안 나와요, 그래더니 나오더라 말입니다. 나와 가지고, 오더라꼬. 그래 거어(거기) 오더만 또 내가 있으이 못 건너서 잣대로 놔주이까 와요. 그래 집에 들와가지고 콧구멍에 소룻이 들어가더마는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몸부림치고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일어나더만,

“야 꿈도 이상하다. 꿈을 꿔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거라. 그래,

“무슨 꿈을 꾸었는데요?”

카인께,

“내가 꿈을 꾸었는데, 어데가 어덴지 모르겠는데, 그래 꿈을 꾸가지고 내가 어데를 가니까 벽 벽이 막히기 있는데, 보니까 누가 벽문을 열어주더라 말입니다. 그래 나갔는데, 가다가 보이 큰 강이 있는데, 강을 못 건너가서 이래쌓는데 누가 다리를 놔주는데, 다리를 건너서 갔는데, 거어 가니까 어느 굴 속에 들어가니까 큰 항아리에다가 보물이 꼭 들어가 있는데, 어데잡치인고 그걸 모르겠다.”

이거라.

“그래요? 확실해요?”

카이,

“확실하다.”

이거라.

“그 항아리에다가 은금보화가 꼭 차가 있는데, 그걸 보고 왔는데, 거기서 어데잡친지 모르겠다.”

이거라.

“그라면 그 자리에 확실히 은금보화가 들었습디까?”

카이.

“들었더라.”

이거라. 그래 가지고 그 안날(다음날) 여자가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새옷을 갈아 입고 그 자리로 가 봤던 모양이라. 가 보니까, 굴이 있는데, 쪼맨 구멍이 있기는 있는데, 그 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안날에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서 캬던 모양이지. 캐 보니까 진짜 항아리가 있어. 큰 항아리가 있는데, 뚜껑을 사알 열어보니까 은금보화가 꼭 차가 있는기라.

그래 새로 내리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부가 함께 목욕을 하고 가서 재를 지내고, 그런 것은 제 안 지내면, 안된다면서? 산삼도 재를 지내고 무슨 말을 하고 캬다 카데. 그래 재를 지내고 그걸 캐가지고 잘 살았다고 그랍디다.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이 들리오는데, 꿈 속에 한 것을 자리만 확실히 알면, 그런기 맞는 수도 있답니다.

[설화 5] 꿩과 쥐

제보자 : 김정순(여, 75세)⁷⁾

채집일 : 1990. 8. 2. 오후 7시반

채집장소 : 강서구 천가동 동선마을 제보자택

※ 채집자가 새나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고 하였더니,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옛날에 꿩(꿩)이가 산중에서 사는데, 쥐는 부지런해서러 계울(겨울)에 목을 양식을 준비한다 말이요.

그렇고, 꿩은 계울뱃아(계울러) 덩기면서 목고 삼동이 되이, 눈이 와 목을기 없단 말이요, 엄동설한에 가이. 아무리 찾아도 목을 것이 없고 눈 속에, 배가고파 죽을 판이 돼서러, 메추리를 부하로 하나 거느렸던기라, 꿩이. 메추리를 보고

“니 가서 이 밭에 쥐 집에 가서러 장리를 좀 내가 온나.”

7) 제보자에 대한 소개는 ‘加德島의 基層文化調査(1)’ (부산대 국어국문학 27집, 1990)에 실려 있음.

이리 시기(시키)거든. 그래

“장리를 내 와서러 삼동에 묵고 내년 봄에 우리가 해가 갓아 주구로(주계) 그렇게 해라.”

카고,

“가거들랑, 닉(너가) 내 시긴 대로 해라. 쥐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오르씨고 내리씨고 홀로남상 계시오’이라거든, 그 쪽에서 ‘계 누구시오’ 이라거들랑 ‘내가 뒷골 장새양 부합니다’ 이래라.”

갸다. 이랬는데, 처억 갔네. 쥐 삼쪽에 가가(가서)

“오르씨고 내리씨고 홀로남상 계시오”

부르네, 이제 쥐 집에 가서 부르이

“계 누구시오.”

이라이

“취새양 계십니까?”

‘뒷골 장새양 부합니다’ 그 소리를 잊이뿌고, ‘취새양’을 불러⁸단 말이다.

[청중: 웃음]

쥐 어른 애명 부른다고 막 쥐가 메물관을 씨고 나와가주고 옥중에다가 비 들기⁹를 가다뺐다(가두어 버렸다). ‘직이라(죽여라) 살리라’카고.

그래 가지고 꿈이 아무리 장리 내가 오도록 배고 고파 기다리고 있느이, 빈청에 앉아 기다리이, 오늘 가도 안 오고 내일 가도 안 오고 한 사나홀 되거든. 이거(이것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찌된 사건인가 한 번 내려가 본다고 터억 간다. 쥐 삼쪽에 가서

“오르씨고 내리씨고 홀로남상 계시오” [청중: 웃음]

이라이,

“계 누구시오?”

이라이

“내가 뒷골 장새양입니다.”

8) 제보자가 평의 부하를 처음에는 ‘메추리’라 하였다가 뒤에는 ‘비들기’라 하였다.

이라이

“아, 그렇습니까? 들오시오(들어오시오)”

이라이, 그래

“앞전에 내 부하를 하나 보냈디마는 다시(도무지) 소식도 없고 흔적이 없어 내가 찾아왔다.”

카이,

“예, 한 분이 와가지고 어른 애명을 불러서러 옥중에 가다났습니다.”

이라이거든. [칭중 : 웃음] 콩이 호랭이를 잡네.(호령을 치네)

“이놈들 녀우(남의) 부하를 보냈으면, 잘못 한 일이 있으면, 내한테 통지를 해 질을 잡으라 카든지 곤장을 치라 카든지 매로 치라 하지 너그가 임의대로 내 부하로 옥중에 가두다가 사흘이나 배를 풀라서러 고상(고생)을 시기고 있노.”

카이,

“아이구 걱정마쇼.”

그래,

“내 놓어라”

카이, 옥중에 비들기는 배지(배)가 고파 죽었다. 큰일났단 말이요, 콩한테, 그만 쥐가 콩한테 사정을 하네. 장리를 몇 섬을 주는지, 저거 있는기고 없는기고. 저거 생명 살라고, 몇 섬을 주네. 그라이 콩이 쥐한테 비들기를 줄라 카네.

“뽕땅구라도 부하 초상을 내가 치지, 다 내놔라.”

이라이,

“성님, 우리가 치지, 가(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허, 아무리 그래로 그럴 수가 있다. 내 밑에 씨던 부하로 너그한테 맡겨나 초상을 쳐가 되나!”

카면서 내놓어라 카거든. 그래 쥐가 종우(종이) 다(에다가) 싸가지고 주거든. 그리고 쥐는 콩이 장리 낸 거로 바리바리 실어가 콩 집에 실어가고, 콩은 비들기를 싸가 가서러 뽕땅구를 싸가 가서러, 저 높은 빈청에 앉아서 비들기

뼈땅구를 오독오독 뽀사(부수어) 묵어빼고. 장리 내가 꿩은 잘 먹고.

그래 꿩이 머리가 영리해 잘 살더라고요. [제보자 : 웃음]

[실화 6] 천벌받은 며느리

제보자 : 박말순(여, 72세)

채집일 : 1991. 8. 3. 오후 3시반

채집장소 : 천가동 놀차 항월마을 제보자택

※ 제보자가 '장자 못 전설'을 강릉에 가는 길에, 여행사의 안내원으로부터 들었다 하면서 구연한 뒤, 이어서 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옛날에 몹시 가난한 집이 있어가주고 아들이가 천날만날 산에 가서 툇 나무를 한 짐씩만 해다가 팔몬 하리(하루) 한때꺼리 달랑 묵우빼리고, 또 하리 한때꺼리 달랑 묵우빼리고 이라인께, 며느리가 어디 점(占)을 해 봤어. '우리 시어마님으로 없애 주우야 우리가 부자로 살겠다.' 점을 하이 이렇더라고.

그래 신랑한테 그 이야기를 하네.

"보소, 우리가 어무이를 없애야 우리가 나무를 안 하고 부자가 되겠답디더." 이래 카저든. 이래 카인께, 그래 하는 말이가

"그렇지마는 엄마를 없앨 수가 있노?"

이래 카이, 열분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자꾸 밥을 묵고 남자한테 그래싸인께.

"그라몬, 그래 봐라."

이래 됐는기라. 그래 씻근 옷을 입히 갖고, 장을 봐다가 어마이를 잘 해 먹 있어. 해 먹이가지고 한날 아들이 업었어. 업고 가이, 뒷동산 산천에 가인까네 그것도 하늘이 돌봤지. 묵은 고목나무가 두 날이 딱 흠이 따로 파저가 있는 기라. 있으인께, 한 고목나무에 딱 저그매를 업어다 놓고, 한 고목나무에는 안 가고, 뽕피기를 끌어다가 그 고목나무 밑에 다가 놓고 불로 놔냈는기라. 불로 놓은께네, 저그매 타서 죽을거는 사실이거든. [제보자가 채집자를 향하여] 안

그렇나? 그래 저그매가 무슨 잠이 오겠노? 불은 나무에 붙어놓으니 밀구영은 뜨시는데, 어데서 도둑놈이가 마적의 때라. 나무 밑에 불로 놔놓이, 이전에 도둑놈이 동네에서 털어다갔다 엽전을 수디기(술하개) 부우 놓고 세아리는 판이라. 할마씨가 지침을 해도 죽겠고 안 해도 죽겠고, 그래 애래이 빌어목을, 지침을 안 할라꼬 안 할라꼬 해도 지침이 나오는기라. 한번 딱 해줬다 말이지. 아이고, 마적의 때가 뒤에서 지(저희) 잡으러 온다고 다 달아나겠는기라.

그래 다 달아나벤데, 불이 훨훨 붙었는데, 난데없이 학이 한 마리 푸루루 날아오디, 할마시로 꼭대기로 이리 덜렁 짚어 들어가지고 불 안 붙는 고목나무에다 들어다왔던기라. 들어다와두이, 그래, 날이 흰하이 새고 보이, 할마시가 보이 돈이 수두룩 하이 이래 있거든. 그 돈을 처매 앞에다가 많이 썼는기라. 그래 뒷동산인게 할마시가 저그 집으로 내려왔는기라. 내려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역수로 썼는기라. 사가지고, 나무도 안 하고 부자가 됐더라 말이지. 부자가 됐는데, 인자 열매를 있다가 메느리가 남편한테 이란다(이렇게 말한다),

“보소, 보소, 어무이매로(어머니처럼) 날로 한분만 업어다 고목나무 하나 있으이, 거기에 놔 주소.”

이라는기라.

“우리가 이것만 해도 잘 살겠는데, 뭐할라꼬 그다지도 욕심이 있는 짓을 할라노?”

이리카이, 기우언차(기여코),

“덤어다(데리다) 놔 줄라.”

카네. 그래 열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지도 저그매매로(자기 어머니처럼) 옷을 턱 입히가지고 마누라를 업어가지고 안 탄 고목나무에 갖다 놓고, 도래도래 나무를 모아 놓고 불로 놔놓고 저그 집에 왔다가 아침에 가보이 소부래이 나무에 붙어 타 죽었더란다.

그래 욕심이 많으면 실물로 거두는기라. 그거는 천하가 내리 덮히 가지고

천하지조화(天下之造化)로 해서, 참 신명(神明)이 내리서로 저그마이도 살리고, 저그도 나무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것만 쳐묵고 있지. 지가 그래쌓인께 지는 타서 죽어뻘는기라, 그래 너무 욕심이 많으른 실물로 거둔다고, 이전에 할매들 하는 말 하나도 내뻘릴 말이 없다이.

[설화 7] 숙종대왕을 살린 이인

제보자 : 김두선(남, 75세)

채집일 : 1985. 8. 11. 오후 3시

채집장소 : 강서구 천가동 대항마을 제보자택

※ 제보자에게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하였더니 ‘박문수와 효녀’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옛날에 숙종대왕이 힘이 장사야. 힘이 장산데, 밤으로 여행을 마이(많이) 댕겨, 여행으로. 이 지팽이 짝대기로 짚고 자기 마음대로, 축지법을 하는 대왕인데, 그 짝대기 짚고, 내가 십리 간다 카면 십리 가고 이십리 간다 카면 이십리 가고 이런 대왕인데, 이 분이 밤으로 뚝 여행을 댕기는데, 그런데 저 백두산 못에, 거게 옛날에는 신선이 한 분씩 내려온다 카이, 그 못에 그 신선을 한 분 만나러 가겠다고 거게로 갔어. 그런데 가던 그날 저녁이 달밤이라. 보름달 달밤인데, 그런데 그런 대왕은 지팽이 몇 분 짚으면 가거든.

서울 장안에서 그 백두산 꼭대기 못에 인자 신선 만나러 간다고 가니까, 과연 그 못이 그 자리에 있어. 못이 있는데, 못이 주룩편편하게 있는데, 도시(도대체) 집이라고는 없거든. 집이라곤 없는데, 그래 보름날 되니까 열쭈(대강) 열한 시나 넘어 댕던기라. 그래 한 군데 보니까네 불이 뻘히 켜가 있어. 이쪽에서 저쪽 건너 보이, 저쪽 건너(건너에) 불이 뻘해이 해가 있는기라. 못을 돌아 갈라 카면 한참 걸릴거라. 그런데 자기가 지팽이가 있으이끼네 축지법을 써서 퍼뜩 건너갔다 말이야. 가가지고 이제

“주인장!”

부르이까네, 이쁜 처녀가 하나 나오는데, 가까이 보이 참 일색이거든. 그러이
 께네 숙종대왕이가 이것은 만나시 하늘의 선녀다. 선녀이니까 내가 상대해야
 되겠다고. 그래 떠억 인사를 하이께네,

“대왕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카면서 모시거든.

숙종대왕이가 내 이름을 승기고 땡기니까 모를진데 이 여자가 나를 알더라
 말이지. 그래 여자가 대왕을 방에다 모셔놓고

“아이구 여계 오신다고 시창하실건대 진지를 내 지어 오겠습니다.”

카면서 나가더니 퍼뜩하이 메를 지어 왔어. 밥을 지어 왔어. 그런데 음식이
 들어오는데 보이께네, 아주 별미라, 음식을 해가 완기가(온것이). 그런데 인자
 숙종대왕이가 가마이 생각하이 ‘강원도 금강산에 호랭이 잡으러 간 사람이
 백 명이 가서 한 사람도 살아왔다는 말이 없더라’ 카는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인자 여자가 물을 끓이가지고 승녕을 해가지고 왔는데, 대왕이가 밥상을 웃
 목으로 밀쳐놓고 그 동정을 불라고

“내가 냉수를 좋아하니까 냉수 한 그릇 채려 돌려.”

그러카인께, 그래

“그럼 그러하겠습니다.”

카면서 여자가 돌아 나가는데, 여자가 바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숙종대왕이가
 지팽이로 쥐고 있다가 처마 밑을 떠억 들어 보이까 꼬랑대이가 있거든, 여시
 라. 천년 묵은 여시라. 그날 숙종대왕을 잡아 묵으면 하늘에 득천해 올라가는
 여시라. 여시가 둔갑해가지고 선녀가 돼가지고 있었는기라.

그래 여자가 물 뜨로 간 새 대왕이가 지팽이로 딱 짚고 그만 천리 길로 막
 똬다 말이다. 똬께 따라오는데,

“니 이놈 니가 가른 몇 빌 잘것고? 내가 니를 오늘 저녁에 잡아 묵으면
 대인을 갖다가 구백구십구 명 잡아 묵었는데, 니를 잡아 묵으면 천 명을 묵
 는다. 니를 잡아 묵으면 내가 하늘에 득천해 올라간다.”

카고 딸는데(따르는데) 이거는 한이 없어.

숙종대왕이 힘이 장산데, 그 지팡이로 한 분 딱 때리른 저기(저것이) 맞으면 꼬꾸러져도 또 뛰면 또 따라오는기라. 그래 서울 장안으로 와 온 장안에 숨어 댕기는데, 대왕이 후지끼(쫓겨) 댕기는 택이지. 그래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 제. 그 여시가 잡아 목을라 해싸서.

그래 인자 숙종대왕이가 힘이 풀리가지고 여시한테 쥘힐 판이라. 쥘힐 판에 저 한 구티이(귀퉁이)에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드가가지고 큰 솥티(큰 동이)가 있는데, 솥티가 깨지가지고 있는데, 거게 할매하고 할배하고, 육십 살 목은 할매하고 할배하고 신을 삼아(삼아)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아 목은기라. 옛날 신을 삼아가지고, 팔아 목고 사는데, 그래 그 솥티는 말하자면 지금 걸으면 할배한테 오줌통 한가지라. 거기에 소변을 보고 이라는데, 그래 한밤중이나 됐는데, 할매는 신줄을 꼬아 주고 영감은 신을 삼는데, 방에서 나오디

“할머니 할마이 내일 큰 일 났다.”

개. 그래

“와 그라느냐, 영감 와 그래?”

카이

“국상이 나는데, 내가 내일 두건으로 하나 써야 되는데, 내일 쓸 두건을 지어야 된다.”

이래. 옛날에는 왕이가 부모 한가진데, 아무리 나(나이)가 많거나 나가 적어도 어른이니까[재보자 : 웃음]

“신 삼지 말고 신줄 꼬지 말고 두건 하나 맨들 것 준비하라.”

카거든. 마루 끄티이 서가지고 저 하늘을 보면서.

그래 할마이가 한다는 말이가

“각중에(갑자기) 무슨 국상이 날끼라고 두건 지으라. 카느냐?”

고 이라면서. 할멈도 마루 끄트머리 나오고, 영감은 오줌통에 오줌을 누는기라. 오줌을 누면서 하늘에 천기를 보고 별로 보고 천기를 보는기라. 거게 오줌통 옆에 숙종대왕이가 없드려 가 있는기라. 자기 뒤편치고 등더리고 낮이고

뒤시고 오줌빨이 막 널찌는기라(떨어지는 것이라.) 널찌도 꼼짝 안 하는기라. 안 하는데, 저놈 여시가 그 집에 빙빙 돌면서 못 들어오는기라.

그래 할마이가 한다는 말이가

“국상이 날 줄을 아는데, 국상 안 나도록 방침할 줄은 모르느냐?”

고, 저그 영감을 보고 이라거든. 그라이끼네, 영감이가

“참 어렵다. 방침이가 어려운데, 참 쉽잖다.”

고 캐. 그라이끼네 할마이가 하는 말이가

“어려운 일인데, 우짜든가 그 방침을 알 수 있나?”

몰어. 그런데 숙종대왕이 스티 옆에 숨어가 그 소리를 듣네. 듣고 있으이까, 영감이가 하는 말이가

“그래 방침은 하나 있긴 있는데, 어렵다.”

“어렵운기 뭐 있느냐? 말로 한 분 해봐야 내가 알지요.”

이라거든, 할마이가.

“유가(柳家) 집에 피해몬(피하면) 국상을 면할 수 있다.”

이하는기라. 그런데 그 소리를 숙종대왕이가 듣는다 말이지. 사실은 숙종대왕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

“그 유가집에만 피해몬 국상을갓다가 면할 수 있는데, 그 유가집을 우찌 알 수 있노?”

이라거든.

숙종대왕이가 그 소리를 딱 들고, 서울 장안에 유가네 집이 썩비렀는데(아주 많은데) 어느 놈의 집이 유가네 집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유가집을 찾는다고 스티 옆에서 나오는기라. 숙종대왕이가 짝대기를 짚고 나오니까 여시가 또 따랐다 말이다. 여시가 따르면서

“니가 가면 몇 발 같끼냐?”

카면서 따라오거든.

대왕이가 서울 장안을 돌아보이까네 안돼. 유가집을 알 수가 있어야제. 왕이가 낮에 유가집을 봤던들 밤에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알 수 있다. 이래서

후지끼 댕기다 보니까 큰 버들나무가 있는데, 그만 버들나무 우에 올라 탔는 기라. 이것도 버들 유자(柳字) 유가다. 말하자면 숙종대왕이가 유가집에 피해야 된다 카이 이것도 버들 유자 유가이니까 내가 여게 올라갈 뻘이 없다 카고 그래 딱 올라 서이까, 이 백여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가,

“니가 살 때가 됐다. 숙종대왕 니(네) 여산으로 니가 살은 게 아니다.”

카면서 돌아가거든. 그래 여시가 신 삼는 그 집에 들어갈컨데, 그 집에 대 이인에 있어 가지고, 영감이가 대 이인이 되이끼내 그 여시가 이인 집에 못 들어간기라. 그런데 거게 영감이가 육십 살 목우도 대 이인인데, 시(時)로 못 만대가지고 그때까지 있은기라. 그때 대 이인이 시를 만대기라. 그래 숙종대왕이가 살아가지고 시켄(오래) 있다가 그 집을 한 분 살편기라, 숙종대왕이가. 인자 변복을 해가지고 가 보이까 오두막집에 영감이 아주 형편없이 해가지고 살거든. 그래 그걸 아무 소리 없이 보고 왔어. 보고 와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왕이가 명령을 니랐지(내렸지).

“아무데 아무데 가든 오두막집에 할매 영감이가 신을 삶아가지고 묵고 산 단다, 그러이까 아주 참 불쌍이 사니까 심부름을 가서로 할배를 모시고 오너라.”

숙종대왕이가 영을 니라이(내리니) 어느 영이라고 안 할 수가 있어? 그래 심부름을 가지고 신하가 가이까내 할매가 그날 저녁에 그 이야기한 줄을 알고 잡으로 왔다고 저그 영감을 대처(매우) 나무래거든. 우리 인제 가든 죽는다고 [제보자 : 웃음] 왕이 우리한테 심부름 보낼 때는 우릴 사형시킬라고 보냈지. 우리가 이래 사는데 말이지 왕이 우째 알아서 우리한테 심부름 보내겠느냐고 이려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영감은 알았어. 나를 한 분 찾을기라고 알았어. 그래 영감을 떡 모셔 놓고 숙종대왕이가 말하기로 뭐라 카는기 아이라.

“영감님이 해가 사는 형편을 보이까 아주 난감하는데, 소원이 있느냐?”
고, 그래

“내가 아무 소원이 없다.”

고 그마 그라거든. 그란께 대왕이가 영감 방침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고 이런말 저런말 안 하고, 숙종대왕이가

“영감님이 해가 사는 형편을 보니까 아주 딱하니까 내 평생에 평양감사에 벼슬을 하나 줄 모양이니까 평양감사를 가서 한 평생을 잘 살라.”

고. 그래 평양감사를 보냈더란다. 그래 가지고 평양감사로 간 영감이 나(나이)가 육십 살이 돼서 그대 인자 복을 타가지고 자기 평생을 평양감사로 지내는기라. 정치는 불구하고 만날 묵고 놀고 이라는데, 이래 하니까 자꾸 궁실에 보고가 들어와. 정치 잘못 한다고 [제보자: 웃음] 그래 그 영감쟁이가 대왕한테 정치 잘 모른다 캐도, 잘 하거나 못 하거나 좋다 카고 그 자릴 그대로 두었어. 그래 그 영감쟁이가 때를 한 분 보더란다.

옛날에 숙종대왕이가 그런 일이 있었어.

[민요 1] 화투노래

가창자 : 이소전(여. 78세)

가창날 : 1991. 7. 13. 오후 2시

가창장소 : 강서구 천가동 대항마을 가창자택

※ 가창자가 ‘양산도’를 노래한 뒤에 ‘화투 뒷풀이’를 부르겠다면서 이 노래를 가창했다.

외와 보자 외와 보자	화투 한모 외아 보자
정월 솔가지 속속하니	이월 매조 맺어 놓고
삼월 사꾸라 산란하니	사월 흑사리 허리 감고
오월 난초 나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 잘추고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 달도 밝네
구월 국화 굳었던 마음	시월 단풍에 뚝 떨어지고
오동추야 빗님을 실고	비새 찾아 유람 가자.

[민요 2] 아기 어루는 노래

가창자 : 이소전(여. 78세)

가창날 : 1991. 7. 13. 오후 3시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가 ‘각설이타령’을 하고 난 뒤, 계속 이 노래를 가창했다.

금자 동아 옥자 동아	만구 강산에 보배동아
네 어디갔다 인제와	동남풍 건들하니
바람에 불이서 니 왔나	구름에 싸여서 니 왔나
비에서 묻혀 니 왔나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니 어디갔다 인제와	하늘에서 쑥 빠졌나
땅에서 푹 솟았나	낮은 남게는 전가지
높은 남게는 할가지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채이 끝에는 싸래기	옹구전에 바내기
싸래기 받아서 닭주고	딩기 받아서 개주고
온쌀 받아 밥하고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모래밭에 수박걸이	둥글둥글 잘크거라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민요 3] 시집살이요

가창자 : 이소전(여. 78세)

가창날 : 1991. 7. 13. 오후 3시반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가 巫歌 ‘해원풀이’를 부르다가 가사의 일부를 기억할 수 없다 하고 이 노래를 가창했다.

성아 성아 올키 성아	
시집살기 어떻더노	시집살기 좋다마는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제농기 어렵더라
등글등글 수박그릇	밥담기도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제비	말해기도 어렵더라.

[민요 4] 처남·자형 화답가

가창자 : 이소전(여, 78세)

가창날 : 1991. 7. 13. 오후 4시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가 '시집살이'를 가창한 뒤 곧이어 자진하여 가창했다.

서울이라 반지경에	장기두던 처남손아
너에 누부 뗏하더노	입던적삼 등 받더나
신던 보선 불걸더나	입던 적삼 등 안받고
신던 보선 불 안걸고	동지선달 긴긴 밤에
자형오기 기다리데.	애중일사 너저누부
남중호걸 날 마자고	여덟 폭 치마 따서
한 폭은 꼬깔 짓고	한 폭은 바람 짓고
남중호걸 날 안 맞고	쥌고 쥌고 머리 쥌고
신중되어 나갔단다.	

[민요 5] 보리타작 노래(Ⅰ) (Ⅱ)

가창자 : 이소전(여, 78세)

가창날 : 1991. 7. 13. 오후 4시반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가 위의 노래를 한 뒤 조금 쉬었다가 자진하여 이 노래를 가창했다. 후렴은 '오해야 오해야' 이다.

(Ⅰ)

오해야 오해야

형수씨도 내 존만 보요(후렴) 계수씨도 내 존만 보요(후렴)

삼이우지 다 덩기도 (〃) 내 좃 하내만 바래보요(〃)
모두다 내 존만 보요 (〃)

(II)

오해야 오해야

이 보지를 쳐 주거든 (후렴)	보지 끝을 단디봐라 (후렴)
어서어서 뛰디리소 (〃)	한마당을 치고 나면 (〃)
탁주 한말 나오니라 (〃)	하늘만 보고 뛰디리라(〃)
얼른퍼떡 몰아내자 (〃)	서쪽을 쳐다봐라 (〃)
구름이 몰아 들어온다(〃)	얼른퍼떡 몰아내자 (〃)
요집 주인아 들어봐라(〃)	탁주 한말을 가져온나(〃)
이 마당을 치고나면 (〃)	탁주 한말을 먹고나면(〃)
또 한마당을 쳐서보자(〃)	하늘님아 하늘님아 (〃)
별만 많이 나서주면 (〃)	이 마당을 얼른 치요 (〃)

[민요 6] 창부타령

가창자 : 박연이(여. 67세)

가창날 : 1991. 1. 30. 오후 6시 50분

가창장소 : 강서구 천가동 천성마을 부천여인숙

※ 가창자가 무가 '서낭굿노래'를 가창하고 나자, 쯤 쉬었다가 이 노래를 가창했다.

아직(아침)이슬 채전밭에	부리똥 쥐는 저 큰아가
누구 간장을 녹일라고	저래나 곱게도 잘 생겼노
아무렵사 여자몸 되어	굳자야 네간장 못녹이리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연꽃 피는 연당 안에	연밥따는 저 큰아가
그 연밥 내 따다 주마	내 품안에도 잠들어라
잠들기 어렵지 않소	연밥 따기가 늦어오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야
오만남굴 다 베어도	초순난 델랑 베지마라
올 키와 내년을 키와	남수대를 휘어 잡아
저처녀 복판에 던졌더니	남으며는 연분이요
못남으며는 상사로다	상사영사 고를 맺어
고풀도룩만 살아보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날아가는 원앙새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올팍에 창치는 남아	네 창친다고 내 나가리
너보다 더 유정한 남이	내 품안에서 잠들었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원앙도 짝을 지어가고	봄도 봄도 봄이 와서
만천풀잎이 다 피전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니
다시 올줄 모르는구나	움도 싹도 안 나노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민요 7] 고아 한탄 노래

가창자 : 박연이(여. 67세)

가창날 : 1991. 1. 30. 오후 9시반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가 서사무가 '천왕풀이'를 가창하고 나서, 부모 잃은 남매가 남의 상여 나가는 것을 보고 부모가 그리워 부른 노래를 가창하였다 하면서 이 노래를 가창했다.

저게가는 저 상부는	남상분가 여상분가
우리 아버지 만나거든	어린 동생 앞에 찌고
까삭까삭 까삭밭에	신이 없어 우더라소
저게 가는 저 상부는	남상분가 여상분가

우리 엄마로 만나거든 어린 동생 앞에 찌고
배가 고파서 우더라소

그리하고도 사흘만에 오리한쌍 게우한쌍
생생이 떠들온다 오리오리 게오리야
대동강으로는 어테다두고 눈물강으로 떠들오노
대동강도 있지마는 뜻이 달라서 떠들오요
오리오리 게오리는 신을 주고도 돌아가고
게우게우 저게우는 젖을 주고 돌아간다.

[민요 8] 등지

가창자 : 전숙영(여. 79세)

가창날 : 1991. 2. 28. 오후 1시

가창장소 : 강서구 천가동 천성마을 공판장

※ 이노길(여. 68)이 '도라지타령'을 부르고 나자, 가창자가 자진하여 등
지를 가창했다.

물꼬야 칭칭 털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델 갔소
등너메다 첩을 두고 첩어야 집에 놀로 갔네

무슨 년의 첩이건대 밤에 가고 낮에 가요
낮우로는 놀로가고 밤우로는 자로가네

첩어야 집은 꽃밭이요 요내집은 연못이라
꽃·나비는 한철인데 연못 잉어는 사철이라

등에 동천 돌은해는 일락서산 넘어가네
해는 지고 저문날에 곳곳마다 연기나네

우리 엄마 어디가고 연기별 줄 모르는고
너 어머니 오더라만 칠성판에 실리오네.

[민요 9] 등지

가창자 : 이노길(여. 68세) · 김말분(여. 63세)

가창날 : 1991. 2. 27. 오후 6시 10분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는 박연이가 '양산도'를 부르고 나자, '등지'를 부르겠다 하며 가창하되, 이노길이 선창 · 김말분이 후창했다.

(선창) 서마지기 이논빼이	반달걸이도 심어가네
(후창) 니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담복담복 밀수지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우리할맘 어디가고	물국시에 더욱 싫네
이논빼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술을 심어서 영화로다
자갈논을 싹갈아서	물 들오는거 보기 좋네
영창문을 반만열고	임 들오는거 보기 좋네
짚래꽃은 장가가고	석류나꽃은 상객간다
만인간아 옷지마라	씨종재바래 내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 잘입고도 어데가요
석자건 목에 걸고	첩어야 방에 자로가네
낭창낭랑 배락끝에	무정하던 올오람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지야한쌍 심기볼래
오늘낮에 점شم반찬	무슨반찬이 오를노고
전라도라 고등청애	바리바리야 올랐だよ
모시적삼 안섰안에	함박꽃이 피어졌네
그꽃하나 췌라하니	호령소리 처정나네

서울이라 남기없어	죽절비너로 다리왔네
그다리를 건너올때	정절콩다콩 소리나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시집갈래
구시월이 닥쳐오면	나도커서 열매어요
한강에다 모를부여	모쩌내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민요 10] 정열가

가창자 : 김상이(여, 65세)

가창날 : 1991. 2. 27. 오후 7시 20분

가창장소 : 상과 동

※ 김정수(여, 61)가 ‘울도담도 없는 집에’를 가창하고 난 뒤, 이 가창자가 ‘수견수견 반베수견’이라는 노랫가락을 부르고 이어서 이 노래를 가창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레라	질에서보니 처잘레라
저 처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레라
홍길바신 오라버니	그런말씀 하지마소
남풍이 털이불어	풍지떠는 소릴레라.

[민요 11] 백발가

가창자 : 박임이(여, 77세)

가창날 : 1991. 1. 15. 오후 6시

가창장소 : 강서구 천가동 천성마을 부천여인숙

※ 가창자가 ‘보리타작노래’를 부르고 이어 이 노래를 가창했다.

질 위에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웃지마소
우리도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잠시더라

삼단걸은 이내머리	부당산이 웬말인고
거울같이 밝던눈이	반봉사가 웬말인고
새별같이 밝던귀는	적막강산이 웬말인고
꼽던얼굴 살이지고	저반버심이 웬말인고
아릿턱은 코를 차고	그중에도 목을라고
음석말만 해야지면	누가쳐서 눈물인고
그중에도 입을라고	의복말만 해야지면
누가쳐서 눈물인고	
나무도 고목이 되니	오는 새도 아니오요
꽃도꽃도 낙화가 되니	오는 나비도 아니오고
비단옷도 떨어지면	청걸레로 돌아가고
좋은 음식 쉬어지면	수채 궁글 찾아가요
후세상을 못오라꼬	드는 칼을 내리치니
혼이 나서 안울란가	
후세상을 못오라꼬	저 포장을 채리놓으면
혼이 나서 안울란가	
은갓 음식을 채리놓고	만단 계수를 채리 놓고
빌어야 본들 안울란가	
할수 없네 할수 없네	오는세월 가는 백발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후세상을 못오라꼬
빌어본들 아니오나	
우리나라 진세왕도	지(제)갈 날로 몰라주고
우리야 나라 금상님도	지 갈날로 몰라준다.

[민요 12] 시집살이요

가창자 : 박임이(여, 77세)
 가창날 : 1991. 1. 5. 오후 6시반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가 자진하여 '백발가'를 부른 뒤 이 노래를 가창했다.

시집가서 삼일만에	양동우를 깨었구나
시누버님 한단말씀	야 이년아 너그집에 나리가서
논밭전지 팔더래도	내 양동우 사들이라
시어무니 하는말씀	이년아 너그집에 들어가서
논밭전지 팔더래도	내 양동우 사들이라
어무니오 어무니오	들어보소 들어보소
이내일신 허락할때	앞집에서 궁합보고
뒷집에서 책력보고	
청혼허혼 다받을때	마당우에 도구엿고
도구우에 제상엿고	
두리평풍 둘러치고	암닭장닭 마주얏히
일문두리 늦춌대는	쌍쌍이로 세아놓고
청실홍실 피아놓고	동네어른 모아놓고
일가친척 모아놓고	이내몸을 허락할때
양동우가 꿇이요	은동우가 꿇이요
하늘걸은 내미느라	조꾸만한 네속에서
그런말씀 나올줄을	내 몰랐다
만근걸은 내미느라	그런말씀 니나올줄
내 몰랐다.	

[민요 13] 등지

가창자 : 김일본(여. 74세) · 박임이(여. 77세)

가창날 : 1991. 1. 30. 오후 5시 45분

가창장소 : 상과 동

※ 박연이(여. 67세)가 ‘창부타령’을 하고 난 뒤 채집자가 ‘등지’ 노래를 불러 달라고 청했더니 이 노래를 가창했다. 박임이 선창, 김일본이 후창했다.

(선창)아랫옷방 소년들아

연줄 걷는 기경가자

(후창)그 연줄을 따라가면

기린부모 만낸다네

달 떠오네 달 떠오네	녹산고개로 달 떠오네
저달이 누 달이나	방우방우 달일래라
하늘에라 눈비가 와서	높은데는 목화로세
한강에다 모를부여	모찌기도 난감하네
조루자 조루자	이 못자리를 조루자
놀리자 놀리자	호미야 손을 놀리자
강남땅 강대추	아개자개도 열렸네
충청도 줄복숭	주절이 가지도 열렸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 넣어
그알 하나 내주었으면	금년 과거 내할거로
해다졌네 해다졌네	저산너메로 해다졌네
올어메는 어데가고	연기야 넬줄을 모르던고.

[민요 14] 권주가

가창자 : 이노길(여, 68세)

가창날 : 1991. 2. 27.

가창장소 : 상과 동

※ 채집자가 가창자에게 '술과 관계있는 노래' 없느냐 물었더니 이 노래를 가창해 주었다.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다 술을 해영어
그 술 익자 그 꽃이 피자	임이 오시자 달 떠오네
동자야 술 걸러라	임으께도 권주하자
잡으시요 잡으시요	이 술 한잔을 잡으시요
첫째 잔을 인삿잔이요	둘째 잔은 권주잔이라
이 술 한잔을 먹기되면	늬도 젊도 안한다요.

[민요 15] 이 노래

가창자 : 김일본(여, 74세)

가창날 : 1991. 1. 5. 오후 8시

가창장소 : 상과 동

※ 가창자가 서사민요 '물 길러간 세째 딸'을 가창하고 재미있는 동물노래를 하겠다 하고 이 노래를 가창했다.

이야 이야 말들어라	니(네) 발이 육발인들
이수팔방 니(네) 걸었나	니 등더리(등) 납딱한들
진시황 만리 쌓을때	돌 한 덩이(덩이) 저다 쫓나
니 가슴이 먹통인들	이태백이 죽어갈때
부고한장 니 전했나	
니(네) 님이(놈이) 잡김민들	잔말 말고 꼭 죽거라.

[민요 16] 진주 난봉가

가창자 : 김일본(여, 74세)

가창날 : 1991. 1. 5. 오후 9시 30분

가창장소 : 위와 동

※ 채집자가 가창자를 보고 '진주 남강 빨래하던 여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 하였더니 이 노래를 가창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년 살고나니
시아마씨 하는 말이	야야 아가 메늘아가
진주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검은 빨래 검기 씻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오동통한 머리돌고	한눈으로 슬쩍보니
구름걸은 말을타고	몬본치로 가는구나
그러구로 헤어가주	집이라고 들어오니
시아마씨 하는말이	야야아가 메늘아가

진주야냥군을 불러거든	아래청을 내려가라
아랫방문 열어보니	오색가지 수를 놓고
기상년첩 옆에 놓고	몬본치로 하는구나
그것보기 더욱 싫어	옷방으로 올라와서
목을매여 죽었구나	
넘아넘아 몬셀넘아	
기상년첩 한열홀이고	본처사랑 백년인데
그렇다고 네가 가나	
이승에서 못살거든	저승가서 살아봐라.

[민요 17] 사위노래 I. II.

가창자 : 박연이(여, 67세)

가창날 : 1991. 2. 27. 오후 5시 20분

가창장소 : 강서구 천가동 천성마을 공판장

※ 김발분(여, 63세)이 '사위노래'를 하다가 가사를 못외어 중단하자 가창자가 이 노래를 가창했다.

I.

저기가는 저할마씨	딸있거든 사우하소
딸이야 있지마는	나가 어리 몬하겠네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가고	새가 작아도 알을 놓고
당신딸 나를 주면	삼년 안에 외손보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II.

내딸 죽은 내사우야	울고갈길 왜왔느냐
이왕지사 완걸음에	발치잡이나 자고가지
자면자고 말면말지	발치잡자기 내사싫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민요 18] 삼사노래

가창자 : 박연이(여, 67세)

가창날 : 1991. 1. 30. 오후 8시 35분

가창장소 : 강서구 천가동 천성마을 부천여인숙

※ 가창자는 “경상도아리랑”을 부르고 난 뒤 자진하여 이 노래를 가창했다.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지요
조그만한 여자속이	얼마나 깊으리요
높은봉 산봉에	외로운 저소나무
날과같이도	외로이 섰구나
높은 산에 눈이 날려	솔잎마장 백수로다
낮은 산에 비가 내려	골골마장 녹수로다
녹수청청 흐르는 물에	배차 씻는 저큰아가
겉에 걸일은 재끼놓고	속에 속일만 나를 주소
너가 나를 언제 봤다	속에 속임을 줄라하요.